

사 회

檢, 장학기금 불법조성 혐의 황주홍 군수 기소유에 처분

광주경찰 수사권 남용 문제있다

2차례 군청 압수수색 ... 9개월 끈 수사 혐의 못밝혀

장학기금 불법 조성 혐의를 받은 황주홍 강진군수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에 처분을 내리면서 황 군수에 대한 광주경찰의 무리한 수사가 도마위에 올랐다.

광주경찰은 세 차례에 걸친 감사원 감사에 이은 전남경찰청의 내사종결에도 불구하고, 관찰지역 논란까지 휩싸이며 9개월여에 걸친 강도높은 수사를 벌였지만 구체적인 혐의사실을 밝혀내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더욱이 경찰은 2차례 걸친 대대적인 압수수색까지 벌이고도 공소유지에 필요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수사력 소모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혼란을 불러오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호경)는 18일 군민장학재단 불법기금 조성 혐의(직권남용 등)로 입건된 황 군수에 대해 기소유에 처분했다.

검찰은 장학재단 운영과 장학금 모집 과정에서 일부 위법행위가 있었지만, 기소에 따른 실익이 없고 황 군수가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군 발전을 위해 재단 운영을 주도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에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다른 지자체 장학재단 운영사례를 검토한 결과,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는 강진 장학재단만을 문제 삼을 이유는 없었다고 밝혔다.

황 군수는 ▲공무원을 동원해서 장학기금을 모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장학재단 허가를 사후에

받은 혐의(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원에게 금지된 기부금 모집을 한 혐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경에 소환되는 등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또 경찰 수사단계에서 거론된 뇌물수수나 업무상 배임 혐의도 무혐의 처리했다.

경찰은 지난 4월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과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황 군수를 입건했다.

이에 대해 황주홍 군수는 “그동안 장학금 불법 모집 의혹 수사는 검찰의 칼날 같은 수사 아래 명백하게 진위 여부가 가려졌다”며 “자의 무죄를 믿고 함께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1년여 동안 경찰과 감사원에 발목이 묶여 군정에 충실하지 못

강진군민 장학재단 감사·수사 일지

2004년 11월	황주홍 강진군수 취임
2005년 4월	강진군민장학재단설립
2009년 9월	감사원 1차 감사
10월	감사원 2차 감사
2010년 3월	감사원 3차 감사
4월	전남경찰청 수사 후 종결
12월	광주경찰청 내사 시작
2011년 2월	경찰, 강진군청 1차 압수수색
3월	감사원, 황군수 수사의뢰 광주경찰청 2차 압수수색
4월 1일	황군수 광주 경찰청 소환
4월 13일	광주지검 불구속 수사지휘
8월 12일	광주지검, 황군수 소환
8월 18일	검찰, 황군수 기소유에

했으니 이제 군민과 더불어 화합하는 강진 건설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중부취재본부=남철희 choul@



‘을지연습’ 화재진압하는 소방대

18일 오후 광주 남구청에서 열린 '2011 을지연습' 훈련에서 테러범들의 인질극 및 폭발물 설치 상황을 대비해 출동한 소방대가 화재진압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탈옥수 신창원 감방서 자살 기도 중태

“죄송합니다” 메모 남겨
고무장갑으로 목 졸라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44)이 감방에서 자살을 기도해 의식이 혼미한 상태다.

18일 경북 북부 제1교도소에 따르면 신씨는 이날 새벽 4시10분께 독방에서 고무장갑으로 스스로 목을 조른 채 신음하고 있던 중 교도관에 구조돼 안동병원으로 옮겨 응급치료를 받고 있다.

신씨는 지난 1월에 설거지나 빨래 등을 위해 교도소 안에서 구입한 고무장갑으로 목을 조여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가 수감됐던 감방에서는



“죄송합니다”라는 짧은 글이 적힌 메모지가 발견됐다. 교도소측은 “신씨에 대한 가족

행위는 없었으며 다만, 지난달 자신의 부친이 사망한 이후 적잖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씨는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1997년 1월 부산교도소 감방 화장실의 쇠창살을 절단하고 탈옥한 뒤 2년 넘게 도피행각을 벌이다 1999년 7월 붙잡혀 22년6월의 형이 추가됐다.

/연합뉴스

■ 신창원은 누구

희대의 탈주극 벌이다

2년만에 순천서 검거

신씨는 1989년 3월 서울 성북구 돈암동의 한 주택에 공범과 함께 흉기를 들고 침입해 3000여만원의 금품을 빼앗고 집주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한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994년 11월 부산교도소로 이감된 신씨는 97년 1월 감방 화장실 통풍구 철망을 뜯고 교도소 사동 밖으로 나온 교도소 내 공사장을 통해 밖으로 달아났다.

그는 탈옥 2년6개월째인 99년 7월 순천의 한 아파트에 숨어있던 중 가스배관 수리를 위해 아파트를 찾았던 수리공의 신고로 검거됐다.

/이종행기자 golee@

만삭 부인 살해 의사

검찰, 무기징역 구형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는 18일 만삭의 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백모(31·의사)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검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돌보던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살해하고 태중의 아이가 지 죽게 한 범죄는 무거운 말로 할 수 없으며 중형이 선고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장 상황과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법의학자들의 의견 등 피고인이 아내를 살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매우 많다”며 “게임 중독인 피고인이 전문의 1차시험을 마치고 극도의 불안 상태에서 군입대 문제 등을 놓고 아내와 다투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탈북자 보험사기단

동료 설계사 주도 14명 보험 가입

교통사고 등 위장 수천만원 타 내

북한 이탈주민(새터민) 14명이 보험 사기를 벌이다가 경찰에 잡혀왔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광주에 사는 새터민 출신 가정주부 김모(26)씨 등 14명의 새터민 여성들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이들은 같은 새터민 출신 보험설계사 김모(여·38)·조모(여·43)씨 등 2명의 권유로 기초생활수급비 일부를 쪼개 각각 5~6개의 보험사에 5~11개 상당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뒤 사고 등으로 위장해 병원에 입원, 1인당 최저 150만원에서 최고 26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06~2008년 사이에 한국에 정착했으며 매월 국가에서 40만~72만원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생활했으며, 남편들은 대부분 중국 한족으로 공사장 일용직으로 일해 생활고를 겪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보험가입 후 빙판길·눈길 또는 등산·운동 중 넘어졌다거나 집안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등의 이유로 보험금을 신청했으며, 서로 정보교환을 통해 입원이 용이한 특정 병원을 찾아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회 적응력이 뒤쳐져 생활고를 겪었던 이들은 자신들보다 먼저 북한에서 이탈해 자리를 잡았던 보험설계사들이 손 쉽게 높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피차 쉽게 유혹에 넘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시장 경제 활동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보험설계사들로부터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장 경제에 익숙하지 못한 일부 북한 이탈 주민들이 범법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기업형 게임머니 환전상 등 무더기 적발

7억7천만원 부당이익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8일 인터넷 게임머니 중개 사이트를 운영하며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수익 원대의 매출을 몰린 사이트 운영자 박모(38)씨 등 21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07년 1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시 서구 삼촌동의 한 건물에 컴퓨터 30대를 갖춘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유통 중이던 7조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매입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게임머니를 아이템 중개 사

이트를 통해 개인에게 되팔아 수수료 명목으로 총 7억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주·야간조를 나누는 것은 물론 총괄·기획·기술·시세분석·서버관리팀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기업형으로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인터넷 접속만으로 원격지에서 1개의 모니터에 최대 144개의 PC를 동시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다중 원격제어 프로그램과 거래 상황을 한눈에 알 수 있는 맞춤형 환전 프로그램 등을 자체 개발해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유제원 전 道 교육위의장 항소심서 벌금형

광주고법, 1500만원 선고

광주고법 형사 1부(이창환 부장판사)는 18일 위장전입을 통해 농지를 사들인 혐의(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로 기소된 유제원(61) 전(前) 전남도 교육위원회 의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학교 기자재 납품을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대상 뇌물)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2006~2008년 도 교육위 의장을 맡은 유 전 의장은 도 교육위에서 활동하는 동안 일선 학교에 기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특정 회사로부터 4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신안의 농지를 위장전입을 통해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나원침 (8383) 김장두



서창교 인근서 60대女

뺑소니 차에 치여 숨져

17일 오후 7시께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서창교 인근 건널목에서 김모(여·60)씨가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승용차는 신호를 위반하고 달려다 김씨를 친 뒤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목격자를 찾는 등 도주 승용차의 행방을 쫓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보성서 50대 열차에 사망

18일 새벽 1시40분께 보성군 보성읍 주봉리 관주시 등산로 인근 철로에서 여수에서 나주로 향하던 화물 열차에 박모(56·보성군 보성읍)씨가 치여 숨졌다.

경찰은 박씨가 전날 오후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는 가족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중부취재본부=선상근기자 sun@

대리운전 여성 미행 강도 CC-TV에 걸려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는 여성을 차를 몰고 뒤따라가 폭행한 뒤 문을 빼앗아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서 행.

○...18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김모(41)씨는 지난 16일 새벽 3시20분께 광주시 북구 연제동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이모(여·35)씨를 폭행한 뒤 귀갈이 등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도망갔다는 것.

○...김씨는 대리운전해 귀가하는 이씨를 5km 가량 미행한 뒤 대리기사 가 돌아가기를 기다렸다가 범행했는데, 경찰은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CC-TV(폐쇄회로) 화면 분석을 통해 김씨를 검거.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선배합격자가 말한다!

공무원 시험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3급공무원 시험 [국·영·수·사·과] 최다 합격! 분명한 강좌!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합승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려보십시오

7급 종합반 8월 14일 2교차반 22명 14명 정원: 1800~1800 12명 담당: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9급 종합반 8월 14일 2교차반 22명 14명 정원: 1800~1800 12명 담당: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법원사기보 8월 14일 2교차반 22명 14명 정원: 1800~1800 12명 담당: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유형별 소빙직(전면) 8월 14일 2교차반 22명 14명 정원: 1800~1800 12명 담당: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명품 "강력면담" 8월 14일 2교차반 22명 14명 정원: 1800~1800 12명 담당: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7급 경찰직 8월 14일 2교차반 22명 14명 정원: 1800~1800 12명 담당: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9급 아간반 8월 14일 2교차반 22명 14명 정원: 1800~1800 12명 담당: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농업직/기술직 8월 14일 2교차반 22명 14명 정원: 1800~1800 12명 담당: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사회복지직 8월 14일 2교차반 22명 14명 정원: 1800~1800 12명 담당: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부시관(법원) 8월 14일 2교차반 22명 14명 정원: 1800~1800 12명 담당: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	--	---	---	---	--	--	---	---	---

개강 9월 1일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

한빛고시학원

광주 전남대 후문 북구청앞 (062)234-0234

직영학원 김영관입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 227-8088

선착순 모집, 조기마감유예!